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정부는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을 당장 재개하라

지난 11월 1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 157명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어 밝히고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율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재개 국민운동본부는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발족식을 갖고, 남북 상생을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구상과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촉구했다.

7월 18일에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등 여러 단체들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과 금

강산관광 재개를 분명히 약속하고 전 민족과 전 세계 앞에 약속하고 선언했다.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을 한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남북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지 11년이 지났다.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 선도적으로 풀

어야 할 민족문제이다. 북한이 중국 · 러시아하고 동맹이듯이 우리도 미국 · 일본을 동맹 또는 우방으로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제, 특히 남북문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인공이고 외세는 협조자이다.

전쟁과 적대의 한복판에 세운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관광객 2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무조건 당장 재개되어야 한다.

춧불혁명으로 탄생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하는 같이 받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을 조건없이 재개해야 한다.

社 說

자살예방에 관심 기울여야

높은 자살률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예산과 인력은 미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가 10억 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기초 지자체였고, 자살예방 예산이 5000만 원 미만인 지자체도 106개(46.3%)에 달했다.

예방 관련 내부조직(공무원) 인원은 1.02명이었다. 이중 정규직은 0.71명, 비정규직은 0.31명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140개(61.1%) 지자체에서 증가했고, 89개(38.9%)에서 감소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가족의 행복은 주택용소방시설로 지키세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점으로 어김없이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다.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 다가구 · 연립 · 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시설 중 단독주택의 화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각 지역 소방서에서 다각도로 지속적인 화재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쉽게 설치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킨다. 소화기는 소방차 2~3대의 화재진압 능력과 비교될 정도로 초기화재 진압 시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Large advertisement for the Korea National Red Cross with images of people and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